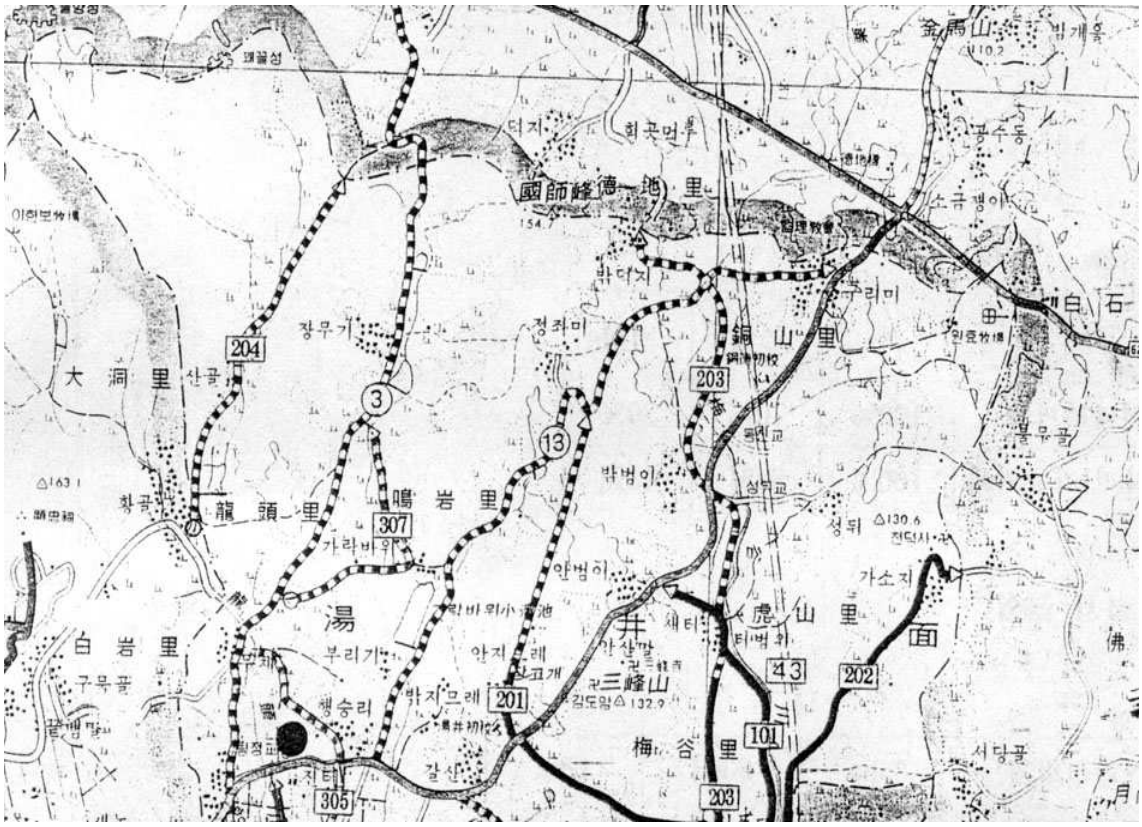
용두리•龍頭里

용두리는 탕정면의 한 마을로 행정상 세 마을로 나뉜다. 1구를 용머리, 2구를 모재, 3구를 산골이라 부른다. 용두리의 총 인구는 570명이고, 세대수는 265가구이다. 그 중 약 8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남씨와 윤씨가 터를 잡은 이 마을은 본래 온양군 이북면의 지역으로서 지형이 용의 머리를 닮았다 하여 용머리 또는 용두리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수현리와 아산군 원남면의 산곡리, 대중리 일부를 병합하여 용두리라 하여 아산군 탕정면에 편입되었다.

<용두리 위치도>



⊠ 용머리, 무재, 산골 마을

용머리 마을은 마을의 형태가 용의 머리를 닮았다 하여 용두리란 지명을 가지게 되었는데 약 430여년의 역사를 가진 마을이다. 마을의 사방으로는 도로가 지나가며 마을을 가로지르는 도로도 있다. 염티면 백암리로 넘어가는 고개는 비늘고개라 하여 전해내려오는 이야기가 얽힌 곳이기도 하다.

무재 마을은행정구역상 용두리 2구를 이루는 곳으로 1구인 용머리 마을을 기준으로 북쪽에 위치해 있다. 무재라는 별칭으로 불리우며 예전에는 성황제와 부락제 민속놀이가 행해지기도 하였다.

용두리 3구를 이루는 곳으로 용머리의 북쪽 끝 물안산성과 꾀꼬리산 자락 하단의 골 깊은 산속에 있다하여 산골이라 불리어졌으며 염티읍 황골과 경계를 이루며 마을 입구에는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서있다.

<조사당시 용두리 마을 관련 사진>

1) 위 치

용두리 마을은 위도 36-49-30, 경도 127-04-20인 지역에 위치한다. 면소재지에서 남쪽으로 직선거리로 1km도 채 안되는 곳에 있는데 304번 도로와 305번 도로가 교차하는 곳에 위치해 있다.

무재 마을은 위도 36-48-10, 경도 127-03-10인 지역에 위치한다. 면소재지에서 북쪽으로 약 500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며 3번 도로와 305번 도로가 만나고 있는 곳이다.

산골 마을은 위도 36-49-00, 경도 127-03-00인 지역에 위치한다. 면소재지에서 북서쪽으로 2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204번 도로 위에 있는 마을이며 면의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2) 현 황

용머리의 총 인구는 373명으로 남자 190명, 여자 183명이다. 세대수는 128가구로 2리와 3리보다도 많이 살고 있으며 그중 71가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무재 마을은 남자 57명 여자 55명으로 총 112명이 살고 있으며 33가구중 20가구가 농업에 종사한다. 산골마을은 인구가 1리 2리 보다 훨씬 적은 총 65명이며 22가구중 15가구가 농업에 종사한다.

– 인구 분포 현황

구 분 마을명	계	남자	여자
용머리 마을	373명	190명	183명
무재 마을	112명	57명	55명
산골 마을	65명	27명	38명

- 생업

구 분	계	농업	기타

마을명			
용머리 마을	100%	55%	45%
무재 마을	100%	61%	39%
산골 마을	100%	68%	32%

농경지 현황은 용머리 마을이 60ha이고 무재마을은 38ha, 산골마을은 28ha이다.

– 농경지 현황

구 분 마을명	계	논	밭
용머리 마을	60ha	20ha	40ha
무재 마을	38ha	18ha	20ha
산골 마을	38ha	18ha	10ha

- 농기계 보유현황

구 분 마을명	경운기	트랙터	양수기	이앙기	건조기	분무기	콤바인
용머리 마을	41		41			62	1
무재 마을	23	1	4	4	1	28	1
산골 마을	16	3	39	7	1	17	3

- 문화시설

구 분 마을명	마을회관	앰프	사물놀이악기	기 타
용머리 마을	1	1	1조	보건소1, 복지회관1개소
무재 마을		1		
산골 마을	1	1		

연령분포를 보면 용머리 마을과 무재마을은 60대가 가장 많으며 산골 마을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 연령별 분포

구 분 마을명	1-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0-
용머리 마을	15	20	30	45	60	35	68	45	15
무재 마을	10	7	2	5	9	20	30	25	4
산골 마을	8	10	6	8	10	7	10	5	1

- 성씨별 분포

구 분 마을명	김씨	이씨	박씨	남씨	윤씨	기타
용머리 마을	26%	18%	6%	11%		39%
무재 마을	12%	18%			42%	28%

산골 마을	9%	41%	5%			45%

- 학생 분포

구 분 마을명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용머리 마을	10	5	10	10
무재 마을	4	3	4	
산골 마을	6	3	2	2

- 최고령자

용머리마을의 최고령자는 89세의 이규녀 할머니이시고 무재마을은 88세의 윤중윤씨 이며 산골마을은 김덕진 할머니가 92세이시다.

- 호당 평균소득

용머리마을의 호당 년평균소득은 약 1,000만원

무재마을은 약 800만원, 산골마을은 약 1,000만원

3) 자 연

용머리는 사방이 도로로 막혀 있고 마을 중앙으로 또 하나의 도로가 지나간다. 마을은 왼쪽 도로 바깥쪽에 있고, 안쪽은 주로 논들이 위치하고 있다.

무재는 주 도로가 교차하는 곳에 있으며 남북으로 통과하는 도로의 왼쪽에 가옥들이 위치한다. 오른쪽에는 도로를 끼고 주로 논들이 위치해 있다.

산골 마을은 염티읍 황골과 경계를 이루며 작은 언덕 사이로 산골저수지가 있다. 그리 높지 않은 산의 안쪽에 자리잡고 있으며 마을 입구에는 큰 느티나무가 있다.

4) 변 천

용두는 본래 온양군 이북면의 지역으로서 지형이 용의 머리를 닮았다 하여 용머리 또는 용두리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수현리와 아산군 원남면의 산곡리, 대중리 일부를 병합하여 용두리라 하여 아산군 탕정면에 편입되었다.

1914년 용두리로 통합된 후 해방 전에 바로 세 마을로 나뉘었다. 그중 하나를 무재 마을을 용두리 2구로 정하였고, 산골짜기에 떨어져 있는 이 마을을 용두리 3구로 정해 산골이라 불렀다.

5) 입 향

약 43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처음 용두리의 터를 잡은 성씨는 의령 남씨이다. 일제시대는 가구수가 40호 정도였는데 점차 늘어나 해방전까지 약 70여호, 그 후 100가구를 넘게 되었다.

무재에 제일 먼저 터를 잡은 성씨는 파평 윤씨이며, 현재 11대손까지 이 마을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마을에 파평 윤씨는 9가구밖에 남지 않았다.

산골 마을은 예전에는 경주 이씨가 마을 인구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으나 지금은 3가구만이 살고 있을 뿐이다.

6) 지 명

·왜리산 : 왜리 뒤에 있는 산.

·용두뿔 : 용머리 끝에 있는 산부리.

·진터산 : 진터 뒤에 있는 산.

·샛 벌 : 용머리 앞에 있는 큰 들.

·쇠지기 : 장덕리 위 건너쪽에 있는 들.

·장 청 : 용머리 왼쪽에 있는 들. 옛날 장청이 있었음

·용머리내 : 물한산에서 발원하여 용머리를 거쳐 한내로 들어가는 내.

·비누고개 : 용머리에서 염티면 백암리로 가는 고개. 옛날 큰 구렁이가 용으로 승천할때 용의 비늘이 떨어져 생겼다 하여 비늘고개라 함.

·공동묘지 : 왜리산 위에 있는 공동묘지.

·탕정교 : 용두리에 있는 다리.

·수현암 : 물 수와 고개 현자를 써서 그렇게 불렀다.

·당마루산 : 진터산 아래에 있는 산으로 신당이 있었다고 한다.

·가장들 : 당마룻들 동쪽에 있는 들.

·당마룻들 : 당마루 아래에 있는 들.

7) 전 설

·용의 비늘

한 마을에 서로 굉장히 좋아하는 처녀·총각이 있었는데 그만 그 처녀가 구렁이에게 제물로 바쳐지는 신세가 되었다. 그 총각은 이 사실을 알고, 처녀를 만나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당신을 구해내겠소"하며 처녀를 안심시키려 했으나 처녀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제가 희생되는 것이 마을을 위해 하는 길입니다."하며 눈물만 흘리는 것이었다. 이윽고 밤이 되고 처녀는 굴 속에 혼자 남겨지게 되었으며, 공포에 떨던 처녀는 구렁이가 나타나는 순간 기절하고 만다. 이때 총각이 나타나 죽음을 무릎쓴 사투를 벌이며 산신령님에게 마음속으로 애타게 도움을 청하게 된다. 그때였다. 문득 하얀 연기가 일더니 신령님이 나타나 "네, 요망한 놈. 너는 어찌하여 사람을 괴롭히느냐."하면서 지팡이로 머리를 툭 치더니 구렁이가 갑자기 용으로 변하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총각도 기운이 빠져 쓰러지고 만다. 다음날 아침에 깨어보니 구렁이는 간데 없고, 바위에는 비늘만이 남아 있었다 한다. 지금은 고개가 되어버린 그 산에 여기저기 흩어진 돌비늘이 총각과 싸울 때 떨어뜨린 용의 비늘이라 한다. 이 비늘 고개가 비누고개로 변하여 불리고 있다.

8) 전통놀이 및 집단행사

칠석놀이와 정월초에 고목나무에 제사를 지냈으며, 고목이 두 개라 두군데에서 지냈으나 6.25후로 없어지게 되었다. 성황제는 비누고개에서 지냈는데 지금은 개인적으로 몇 집만 지내오고 있다. 계는 동계마을 전체 주민이 이루어져 있으며 쌀 3kg정도씩 모여 이용을 한다.

예전에는 선황제와 부락제 민속놀이가 행해 졌으나 지금은 사라졌다고 한다. 선황제를 올렸던 나무를 베어버리면 나쁜일이 생길 거라고 꺼려 했는데 교회가 들어서면서 베어내고 없어지고 말았다.

부락제 민속놀이는 10월 11일에 행해졌었다고 하나 지금은 하지 않고 정월 보름에 노젓가리 이월 초하루에 농민의 명절 음력 이월 보름에는 큰 행사가 행하여 졌으나 이것들 또한 해방후에 사라졌다.

부녀회 및 청년회 주관 경로잔치,효도잔치를 매년실시하고 있다.

9) 특별히 소개할 만한 인물

이 마을에서 특별히 소개할만한 인물은 조사되지 않았음.

10) 종교단체

탕정나사렛 탕정면 용두리284번지 목사: 황하성 종파 : 감리교

중앙감리교회 탕정면 용두리 525-4번지 목사: 민경철 종파 : 감리교

11) 공장현황

대기시트-용두 산 58-3, 자동차부품제조

탕정그린영농조합-용두 591-7,과실발효류제조업

한일생약-용두 108-6, 의약품제조

12) 마을의 특성

이마을은 범죄없는 마을 4회 선정되어 하사금으로 한우 입식 공동사육 25두를 구입하여 그 수익금을 부락 공금으로 사용하는등 많은 발전속에서도 그 순박함과 정결함을 잊지않고 마을 발전을 다시금 더하는데 그 의의가 매우 크다. 범죄가 없는 마을인 만큼 이 마을 사람들

의협동이나 단결력도 매우 좋아 매년 경로잔치 및 효도관광등을 통해 어른들을 공경하는 아름다운 온양아산의 마을이다.